

한옥마을 경기전에서 왕과 역사 캐릭터를 만나다

전주시, 이달부터 10월까지 '왕과의 산책' · '경기전 사람들' 운영

전주한옥마을의 중심부인 경기전에서 여행객이 전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주·야간 문화콘텐츠가 운영된다.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여행객이 직접 역사 속 공간을 만끽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5월부터 10월까지 휴사기를 제외한 매주 주간 콘텐츠인 '경기전 사람들'과 야간 콘텐츠인 '왕과의 산책'을 각각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올해 처음 진행되는 '경기전 사람들'은 경기전에서 만날 법한 다양한 역사 속 인물들로부터 전주의 역사·문화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경기전 부속채 내 각 구역별로 관

상가와 화공, 유생, 수문장, 지관, 기미상공 등 9명의 배우가 배치돼 경기전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각의 배우는 캐릭터에 맞는 전통 복식을 갖춰 입고 분장을 하고 관람객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기념촬영도 해준다.

경기전 사람들이 평일 주간 문화콘텐츠라면 지난 2017년 전주 문화재 야행 때 첫 선을 보인 '왕과의 산책'은 주말을 맞아 전주를 찾는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대표적인 주말 야간 문화콘텐츠이다.

지난해부터 상설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왕과의 산책은 전화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있는 야간 문화콘텐츠로, 오는 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100분간 진행된다.

왕과의 산책은 매회 100명만 한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전에 입장해 특별한 문화해설과 공연 및 다과를 즐길 수 있다. 또, 왕과의 산책에 참여한 시민과 관광객은 왕의 옥성으로 직접 구연되는 역사 해설, 일반에 개방하지 않던 조정교 관람 등을 통해 타 지역의 야간 기행과 차별화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왕과의 산책은 시민들조차 평소 볼 수 없는 경기전의 아름다운 야경을 느낄 수 있고, 은은한 달빛 아래 한지등으로 길을 밝혀 여러 왕들이 들려주는 경기전 곳곳의 숨은 옛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밤이 주는 운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야간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왕과의 산책' 포스터

왕과의 산책 입장티켓 구매는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옥선티켓(<http://ticket1.auction.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행사문의는 문화예술공작소(063-232-9838)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5일 전북대병원 주차장 무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어린이날을 맞아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함께 당일 주차장 무료 개방 서비스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날 당일인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특히, 어린이날 당일 동물원으로 이동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4주차장(정문 좌측 어린이집 옆 주차장)에서는 전주에서 제공하는 무료 셔틀 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동안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당직 근무 의사지정 등 상시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실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연휴 기간 동안 병문안은 입원환자의 안정과 효율적인 감염예방을 위해 허용된 시간에 출입하는 출입통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 범죄 피해자 지원

전북경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역공동체와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도내 10개 가정에 총 5천 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결정할 것이다.

이날 열린 '피해자 지원위원회'는 성·가정·학교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운영중인 지역기업 단체의 경제지원 프로그램과 피해자들의 필요분야에 맞춤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위원회를 통해 조성된 5천여만원의 지원금은 경찰서에서 추천한 폭력·학대·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10개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생계비, 의료비 등의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강석훈 기자

"에어컨 실외기 안치워?"

이웃 둔기로 내려진 일가족

에어컨 실외기를 안 치웠다든 이유로 이웃을 둔기로 내려진 일가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모(67·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8시 50분경 군산시 창성동 한 골목에서 이웃 주민 D모(61)씨를 밀어뜨린 뒤,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 일가족 3명은 B씨가 자신들의 집에 가는 길목에 에어컨 실외기를 놓고 치우지 않아 이 같은 불행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석훈 기자

조촌동 교차로 5중 추돌 발생

2일 오전 7시 50분경 전북 전주시 조촌동 도도교차로 군산방향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25인승 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A모(42)씨 등 18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통근버스가 앞에 있던 포터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석훈 기자

현금 훔친 60대 붙잡혀

마트에 떨어뜨린 현금 6만원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3시 44분경 완산구 한 마트에서 피해자가 물품을 계산하던 중 떨어진 현금 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석훈 기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쉼터형 증강장 조성

전주시, 올해 7억2000만원 투입 팔복예술공장 등 13개소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형 시내버스 증강장을 늘리기로 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국비 1억2000만원 등 총 7억2000만원을 투입해 대중교통 이용객이 많은 13개 시내버스 증강장을 미세먼지 등 외부오염물질로부터 차단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미세먼지 회피 및 쉼터형 시내버스 증강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일 기준치를 초과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세먼지와 차량 매연 등에 직접 노출되는 시내버스 증강장에 미세먼지 회피 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또, 매연과 한파, 호우 등을 차단할 수 있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사업 대상지는 △팔복예술공장(하

△전북은행 △전주종합경기장 △사대 부고사거리 △전북도청 △송천센터럴파크 증강장 등 버스 이용객이 많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로변 증강장 총 13개소이다.

이들 증강장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알릴벨 △공기청정기 △미니도서관 △음주대 △탄소발열의 자스 에어커튼 등 각종 편의시설이 확충돼 복합 쉼터형 증강장으로 탈바꿈된다.

특히, 시는 쉼터형 증강장 조성시 지역예술가를 참여시켜 각각의 지역 특성을 살리고 주변여건을 고려한 독창성을 지닌 공공시설물이자 폭력 있는 문화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예술 있는 증강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앞서, 시는 가능성과 예술성을 갖춘 증강장을 유동인구와 이용객이 가장 많은 △팔복로 국민은행 앞 1개소 △전주시청 부근 2개소 △전주역·대자 인방원 부근 2개소 △신성중·고등학교 앞 등 총 6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어린이날, 덕유산리조트에서 즐겁게'

무주덕유산리조트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설천 하우스 잔디광장에서 아이들이 재치와 끼를 선보이는 무대를 마련함은 물론, 동심을 자극할 만한 게임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덕유산리조트 어린이날 행사. <관련기사 6면>

전주동물원 "5일 초등생 이하 어린이 무료입장"

제97회 어린이날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전주동물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한 동물원 개장시간도 평소(오전 9시)보다 1시간 빠른 오전 8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전주동물원(원장 조동주)은 5일 가정의 달을 맞아 제97회 어린이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동물원 내 중앙 잔디광장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 댄싱, 버블쇼, 페이스페인

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동물원 주변의 극심한 교통 혼잡과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까운 유아중학교와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어린이회관, 종합경기장 등 임시주차장에 주차한 후,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송효철 기자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써주세요"

전주여고등학교 동아리 '장독대' 회원들은 2일 전주시를 방문해 홀로 거주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장독대 소속 여고생들이 학교 행사에서 먹거리장터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이다.

청년·어르신 위한 사회주택 24가구 공급

전주시, 전주대·비전대 주변 17가구 삼천동 소재 7가구

전주시가 올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을 청년과 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 24가구에 공급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2019년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의 공급과 운영을 맡을 사업시행자로 협동조합 합집(대표 김규성)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발전소 맥(대표 김종원)의 2개 업체를 선정, 올해 총 24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전주형 사회주택(Social housing) 공

급사업'은 시가 민간소유의 토지(건물)를 매입하거나 공공 부지를 활용해 사업시행자에게 장기 20년까지 임대하되, 사업시행자는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거취약 계층에게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급되는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리모델링 방식으로, 전주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 주변 청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개별주택형(코하우징) 형태의 효자동 다가구주택 17가구와 청년 쉼터하우스 형태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삼천동 다가구주

택 7가구이다.

시는 협동조합 합집의 사업예정지(효자동3가) 해당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감정평가가격으로 오는 6월 매입해 사업시행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건물 리모델링 후 입주자를 모집·운영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발전소 맥의 사업예정지(삼천동1가)에 대해서는 현재 공모제안서 심사위원회 조건사항 이행 중으로 커뮤니티 공간의 입주자 사용계획 등 이행사항이 완료되면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를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상습 부탄가스 흡입 30대 검거

부탄가스를 흡취 흡입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A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경 군산시내 한 마트에서 부탄가스를 흡취한 뒤 인근 모텔에서 이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트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부탄가스를 흡입해 3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아내에게 성관계 지시'

거액 뜯은 남편 항소심서도 실형

자신의 아내에게 성관계를 지시해 지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공갈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모(38)씨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채무 관계에 있는 재력가 C모(49)씨를 협박해 총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C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빌렸으며, 운영이 어려워지자 추가로 5500만원을 빌렸다.

이후 A씨는 C씨가 평소 아내인 B씨에게 관심이 있던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지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의 강요에 B씨는 C씨에게 접근해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를 빌미로 A씨는 C씨에게 "내 아내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 4500만원의 채무면제와 55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의 범행은 C씨 가족들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사업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은 협박해서 갈취한 돈 대부분을 유혹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담담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